

MMPI에 근거한 국내 남자 살인범 성격프로파일링 및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이 수 정[†] 공 은 경 공 정 식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MMPI 성격검사가 살인범들의 성격프로파일링에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범을 예측함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가설아래, 2000년도에 수거하였던 교정시설 수용자 자료 902개 중에서 현재 출소된 147명의 남자 살인범만의 자료를 무선표집하여 MMPI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중 재범이 추적된 147명의 자료 중에서 MMPI 타당도 척도 상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였던 두 사례를 제외하고 110명의 자료를 최종적인 분석에 포함시켰다. 이 자료는 이들이 수용되어 있을 당시 수거된 MMPI 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다차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차원 상에서 살인범들의 성격유형이 유의미하게 차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차원은 문제를 반사회적 경향과 우울증적 경향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MMPI 성격프로파일이 재범 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측할 것이라는 기존의 믿음은 이 연구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생존분석이나 판별분석을 실시한 그 어떤 결과에서도 MMPI의 하위척도들은 재범예측에 실패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MMPI와 같은 종합심리검사에 근거한 프로파일링이 특정 수형자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데에는 상당히 유용하나, 미래의 재범을 예측하는 데에는 상당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론 이 결론은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살인범 집단을 약 4년 정도 추적하여 확인한 결과에 한정된 것이다. 추후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은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MMPI, 성격프로파일링, 재범

*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지원금(KRF-2004-074-HS0009)에 의해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94-6

E-mail : suejung@hanmail.net, Tel : 031-249-9198

살인은 생명을 영원히 단절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범죄와 구분되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의 상실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상해의 의향이 존재하지 않는 우발적인 사고와 같이 용서 가능한 살인행위(excusable homicides)도 있고, 경찰관이 도주하여 강도범을 사살하거나, 자기방어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경우와 같이 죽일 의향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정당화 가능한 살인행위(justificable homicides)도 있다. 이처럼 살인에도 다양성이 존재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는 살인은 타인에 의한 불법적 죽임인 범죄적 살인행위(criminal homicides)라 할 수 있다. 이런 타인에 의한 불법적인 죽임인 살인을 규정함에는 고의적인 살인(murder)과 비고의적인 살인(manslaughter)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살인을 규정함에 있어 그것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살인인지, 혹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만 하는 계산된 살인인지, 그에 따른 결과에 의해 살인행위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선, 병사가 전장에서 조국을 위하여 적을 사살하거나 경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야기하는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그리고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살인 등은 합법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남편이 부정간 아내를 살해하거나 자신의 명예를 욕되게 하는 사람을 살해하는 등의 살인행위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살인행위는 고의적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혹은 법률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다. 가장 보편적인 살인행위는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말살하는 것과,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사회나 타인에 대

한 증오로 낯선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도 불법적인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으며 법률적인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와는 달리 간혹 불특정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살해행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는 지탄의 대상이지만 전혀 계산되지 않은 인명피해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살인의 유형이 이렇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범죄학의 주요 관심대상이 되는 살인은 역시 범죄적 살인으로서 이것은 그 행위가 계산된 것이든 아니든,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이든 아니든, 법률적으로 불법적인 살해행위였음에는 재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통계적으로 보자면 FBI의 범죄통계 보고서(Uniform Crime Report; UCR)와 다른 통계들로부터 보고된 모든 폭력범죄 중 강력범죄는 대략 1~2% 정도만을 차지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살인범죄는 전체의 0.2% 정도만을 차지하는데, 이는 매년 살인범죄의 결과로 살해되는 피해자의 수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살인범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가장 강력한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생명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그 결과 초래되는 인적·물적 피해가 영원히 원상회복 될 수 없으며, 더불어 살인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겪게 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비용문제는 실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살인을 유발시키는 동기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는 비난의 화살을, 피해자에게는

동정심을 갖기 마련이다. 가해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접어두고라도,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살인사건의 피해자들은 연약할 뿐 아니라 강하고 공격적인 가해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감정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살인사건에 있어서 네 건 중 한 건은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살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Wolfgang(1958)은 이를 “Victim-Precipitated Homicides”라고 칭한 바 있는데, 그는 자신의 필라델피아연구에서 26%의 살인사건이 사실상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Luckenbill(1977)은 자신의 California 연구에서 전체 살인사건의 무려 63%가 피해자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었다고 추정하였다.

또한 살인에 대한 비상식 같은 상식 중 하나는 살인이 사소한 다툼에서 승리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살인이란 극단적으로 심각한 인간행동이지만 살인의 동기는 의외로 매우 사사로운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부부간, 친구간, 동료간 말다툼이 살인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다시 말해서 살인이란, 약자로 하여금 사사로운 논쟁을 가장 쉽게 이기도록 하는 빠르고도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은 논쟁에 이길 수 있는 많은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자를 이길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신체적으로 강인한 사람은 죽이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약자는 그렇지 못하다. 더구나 부자나 강자에게는 사사로운 논쟁일 수 있는 것이 약자와 가난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심각한 폭력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그리

고 이들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거나 대우받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존중심이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명예롭게 살기 위해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살인사건은 유발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진다(검찰청, 2003). 이를 뒷받침해주는 많은 연구들(김진혁, 2002; 이준걸, 2000)은 살인사건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로서 가정 내의 싸움이나 술자리에서의 언쟁 등을 예로 든다. 결국 우리의 경우에도 외국에서처럼 사소한 언쟁이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가정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면 이성적 통제력을 잃게 되어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행동에 이르게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범죄사회학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의 개인차를 가정하는 일이 지나치게 사태를 단순화·정형화하는 시도라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범죄학에서 심리학적인 원인으로 범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 내적인 안정적 특질에 초점을 두어 접근을 시도한다. 특히 인명피해를 내는 극도의 폭력범죄는 정신병리나 성격장애 등에 기인한 것이라 가정하곤 한다. 이 같은 가정은 살인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가설들에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Palmer(1962)는 살인자들은 성장과정에서 결핍을 체험하였기에 자신이 갖지 못한 많은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인명피해를 불사하는 극도의 폭력행위와 관련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복역 중인 살인자를 관찰하였는데, 출생전 및 해산의 조건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형제들에 비하여

난산, 간질병, 신체적 결함이나 신체질환, 대뇌마비, 지능장애 등에서 결핍의 체험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심리적 결핍이 공격행동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내면에 심한 공격성이 형성되어 분노감정을 표현할 수 없게 되면 허언, 절도, 간질, 동물학대와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형태로 공격성을 형상화해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근거하자면 살인범죄의 원인 및 유형을 파악함에 있어 살인범죄자의 성격특성은 중요할 수 있다. 성격은 한 개인의 외현적 행위 뿐 아니라 행동의 잠재력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별 지어주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학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살인범죄자들은 매우 폭력적이며 자신의 분노를 폭발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처 받은 사람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살인범죄를 행위자의 측면에서 파악한다면 성격적 결함,

과도한 폭력성, 의지박약 등을 들 수 있다는 것은 전술하였다. 따라서 살인이라는 특정한 범죄를 두고 볼 때 그들만의 독특한 성격특성이 존재할 것이란 가정은 나름대로 그럴듯한 근거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논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살인범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격패턴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성격유형이 출소 후 재범의 발생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특히 방화처럼 범죄동기적 측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현실 생활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지르는 강력범죄 등이 증가추세에 있다(김찰청, 범죄분석, 2003).

살인범죄도 역시 1966년부터 2004년까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1967년 2.7%의 갑작스러운 증가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는 평균 1.6%, 1980년대는 평균 1.4%, 1990년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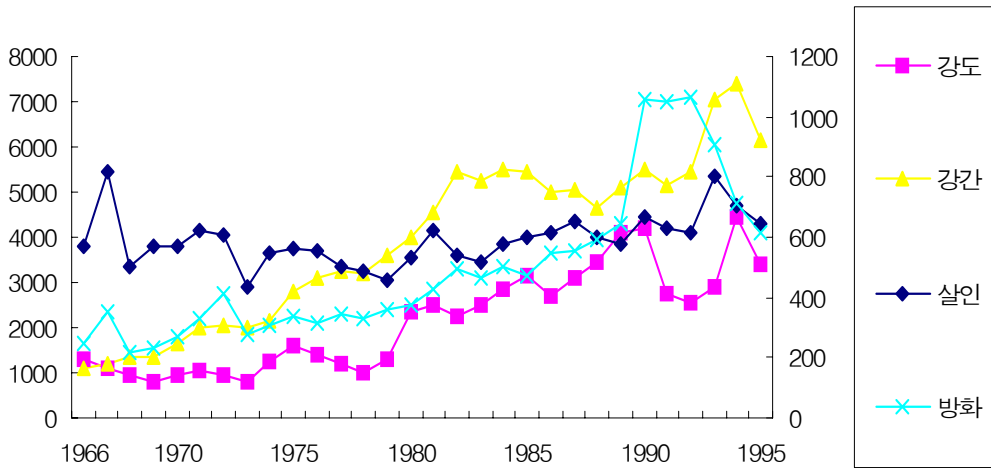


그림 1. 각 연도별 인구 10 만 명당 강력범죄발생건수(1966-1995) 및 발생추이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평균 1.6%의 발생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의 발생율은 1979년의 발생율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0년대에는 발생율이 지속적으로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살인의 경우에도 다른 강력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점진적 증가추세를 지니며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진보적인 이해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강력범죄의 급증은 형사정책적으로도 그 원인기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여, 범행의 동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최근 판결전조사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법원조직법의 개편을 통하여 양형조사 절차를 신설하고 범죄자들의 성격평가까지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기에 이르렀다(중앙일보 2006년 3월 8일자).

이 같은 최근 변화에 발맞추어 이 논문에서는 국내 살인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성격유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탐색하였다. 외국의 경우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성격프로파일링은 범죄의 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중

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심리검사인 MMPI(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를 이용하여 살인범죄자들의 성격이 유형화되는지를 일차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성격이 유형화 된다면 그것을 토대로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MMPI검사는 집단을 구별해주는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검사로서, 정신장애 진단용 검사로 분류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도구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MMPI 검사 하나만으로 살인범들의 성격특성을 유형화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전의 연구들(Megargee, 1970, 1977; Megargee & Bohn, 1977)을 살펴보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격특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들이 확인된 적이 있다. Cornell, Miller 및 Benedek(1988)은 36명의 소년 살인범들을 도구적인 살인과 대인간 갈등에 기인한 살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두 집단의 성격특징을 18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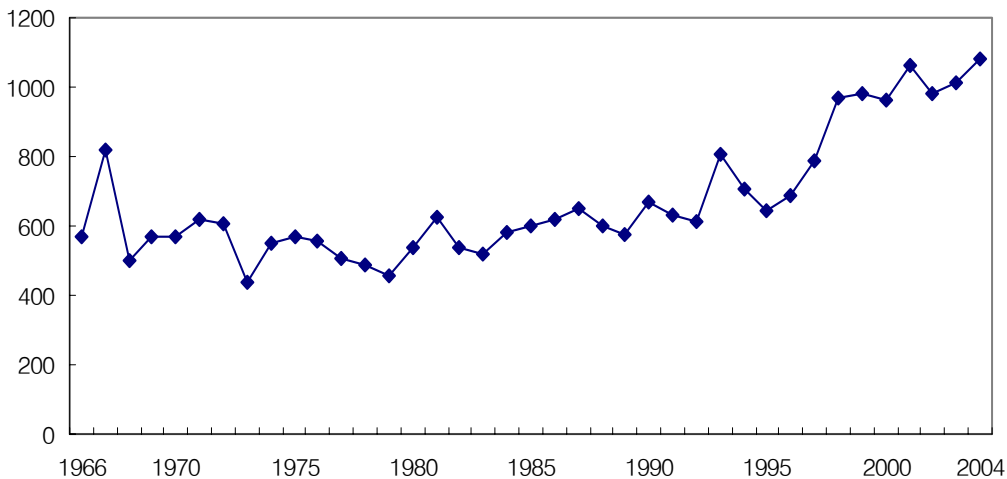


그림 2. 살인범죄의 발생건수(1966-2004) 및 발생추이(단위: 명)

소년 절도범들의 성격유형과 비교하였다. MMPI의 하위척도 중 F, Hs, Hy, 그리고 Sc 점수에서 도구적 살인사건을 저지른 소년들의 점수가 대인간 충돌로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절도만 한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지표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Megargee와 Dorhout(1977)는 폭력범죄자들의 MMPI 점수 상에서 나타난 특성은 10가지 프로파일 형태로 정리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Zager(1988)는 그 후 이들 10가지 유형에 대하여 각기 성격특성을 개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유형을 명명화 하였다. 예컨대 폭력범죄자들 중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는 Sc, Ma, Pd 척도가 높게 나오는 부류인데, 이들의 이름을 Foxtrot이라고 명명하고, 이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특성은 강인하고 물질에 밝으며, 냉소적이며, 반사회적이라고 정리하였다. 또다른 유형인 Abel은 MMPI 하위척도 중 Pd(Psychopathic Deviate)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반사회적인 성격장애가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이들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남에게 호감을 주지만 노상 타인을 속이고 조정하며, 쾌락에 탐닉하는 경향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런 특성들이 재범을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이었음을 밝혀둔다.

이 같이 이전 연구들에서 유형화한 프로파일들을 Holcomb, Adams 및 Ponder(1985)는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들은 군집분석을 통해 80명의 살인범들로부터 얻어진 MMPI 총분산의 96.25%가 5개의 유형으로 잘 설명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물론 Megargee 등이 제안하였던 10가지 하위유형이 모두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Holcomb 등(1985)의 연구는 살인범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질적인 성격유형이 존재하며 이 같은 성격

유형은 그들의 범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생활 전반을 통해서 발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우선적인 연구목적은 MMPI 점수 상에서 국내 살인범들의 성격이 유형화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다차원 분석을 실시하여 MMPI 하위척도들의 어떠한 조합이 살인범들의 성격유형을 잘 유형화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때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는 아마도 반사회성을 평가하는 Pd 척도나 경조증을 측정하는 Ma 척도가 각각의 잠재차원에 높은 가중치로 수렴될 것이란 점이었다. 나아가 MMPI 상에서 살인범들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데 특히 유용한 기준들은 전과회수와 같은 개별 범해특성등과도 연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나아가 출소 후 약 4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재범을 예측할 때, 과거 복역 당시의 MMPI 점수들이 유용한 예측치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방 법

피조사자

이 조사분석에 포함되었던 살인범들의 자료는 2000년 전국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수감자 902명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자료의 일부이다. 이들 중에는 살인, 강간, 폭력, 사기 등의 다양한 범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살인범에만 한정하였기 때문에 147명의 성인 남성 살인범의 MMPI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때 결측치를 많이 지녔던 37명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자료 분

표 1.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최종학력	무학 3명(2.7%)
	초퇴·졸 13명(11.8%)
	중퇴·졸 34명(30.9%)
	고재·퇴·졸 52명(47.3%)
	전문대 퇴·졸 4명(3.6%)
	대학 재·퇴·졸 4명(3.6%)
종교	무교 9명(8.2%)
	기독교 49명(44.5%)
	천주교 18명(16.4%)
	불교 33명(30.0%)
	기타 1명(0.9%)
혼인상태	미혼 70명(63.6%)
	결혼 25명(22.7%)
	이혼 12명(10.9%)
	사별 3명(2.7%)

석에 포함되었던 피조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피조사자들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무학이 2.7%, 초등학교 퇴학 및 졸업이 11.8%, 중학교 퇴학 및 졸업이 30.9%, 고등학교 재학 및 퇴학·졸업이 47.3%, 전문대 3.6%, 대학 3.6% 이며, 종교는 무교 8.2%, 기독교 44.5%, 천주교 16.4%, 불교 30.0%, 기타 .9% 등으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는 미혼 63.6%, 결혼 22.7%, 이혼 10.9%, 사별 2.7%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과관련 사실들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본 범 내용에 있어서는 강간살인범이 13명(11.8%), 강도살인범은 16명(14.5%), 살인치사는 61명(55.5%), 폭행치사는 8명(7.3%), 약물관련 살인 2명(1.8%), 존속살인 등 기타 살인 10명(9.1%)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2). 실형전과 및 총 전과, 보호감호 등에 대해 살펴보면, 실

표 2. 전과관련 빈도

구분	빈도(%)
본 범 죄명	강간살인 13명(11.8%)
	강도살인 16명(14.5%)
	살인 61명(55.5%)
	폭행살인 8명(7.3%)
	약물살인 2명(1.8%)
	기타 10명(9.1%)
실형전과	없음 2명(1.8%)
	1~3번 89명(80.9%)
	4~6번 12명(10.9%)
	7번 이상 7명(6.4%)
총전과횟수	1~3번 65명(59.1%)
	4~6번 27명(24.5%)
	7~9번 10명(9.1%)
	10번 이상 8명(7.3%)
보호감호	경험 유 2명(1.8%)
	경험 무 108명(98.2%)
재범여부	비재범 99명(90.0%)
	재범 11명(10.0%)
총계	110명(100.0%)

형전과는 없음이 1.8%, 1~3번 80.9%, 4~6번 10.9%, 7번 이상이 6.4%로 나타났으며, 총 전과횟수는 1~3번이 59.1%, 4~6번 24.5%, 7~9번 9.1%, 10번 이상이 7.3%이고, 보호감호는 1.8%만이 경험을 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2000년 이후 본 표본에 포함된 수용자 전원은 모두 출소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출소 이후 기간은 약 4.1년 정도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범 여부를 추적한 결과 이들 중 총 11명이 재범을 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살인범들의 출소 후 재범률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재범률이란 동종 재범이 아님을 밝혀둔다.

검사도구

MMPI 성격검사

MMPI 성격검사는 4개의 타당도 척도(무응답 척도 포함)와 10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상장면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타당도 척도는 피검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무응답척도, 피검자가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보이려는 부정직의 척도를 측정하는 L(Lie) 척도, 검사문항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응답하는 사람을 탐지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상반응의 경향, 정신병리의 정도, 일반적인 적응행동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F(Infrequency)척도, 방어심과 경계심의 정도를 측정하는 K(Defensiveness)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임상척도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불안과 다양한 신체적 증상의 집착성 정도를 측정하는 Hs(Hypochondriasis)척도, MMPI 시행 당시에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의 정도를 측정하는 D(Depression)척도,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부인의 양과 형태를 측정하는 Hy(Hysteria)척도, 반사회적 성격으로서 비도덕적인 정도를 측정하는 Pd(Psychopathic Deviate) 척도, 피검사자의 남성적 또는 여성적 성향 정도를 측정하는 Mf(Masculinity Femininity)척도, 피검사자의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의심성·자기주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Pa(Paranoia)척도, 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적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Pt(Psychasthenia)척도, 정신적 혼란의 정도를 측정하는 Sc(Schizophrenia)척도, 피검사자의 정신적 에너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Ma(hypomania)척도, 내외향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Si(Social Introversion)척도로 구성되어 있는 성격검사이다. MMPI 성격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에서 임영란과 안창일(1992)은 한국형 MMPI 내용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정상인 집단에서 .68~.78, 대학생집단에서 .64~.87, 정신과 환자 집단에서 .74~.92의 분포를 보인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수거된 피조사자들의 MMPI 결과는 이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신입심사 단계에서 수거된 것이다. 각 하위 척도의 평균 Cronbach's alpha 계수는 .8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방법

일단 다차원분석(multidimensional scaling; MDS)을 적용하여 MMPI 하위척도 상에서 나타난 살인범들의 성격유형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때 다차원분석이란 대상(object)에 대한 피험자(subject)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데이터라든가 대상과 대상 사이의 유사성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적당한 성질과 차원을 갖는 공간에 대상과 피험자의 공간배치를 각각 혹은 동시에 추정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MMPI 검사를 통한 살인범들의 성격적 특징이 다차원 공간에서 잘 유형화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XCAL과 ALSICAL 방법을 통하여 MMPI 하위척도들로 구성된 잠재적 차원을 추출하고 대상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차이분석을 적용하여 범해요인과 4년의 추적조사 끝에 확인된 재범사실이 MMPI 하위척도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는지 확인하였다. 더불어 판별분석을 통해 재범집단을 잘 변별해내는 MMPI 하위척도들의 잠재함수도 추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소 후 재범까지의 기간을 시간변수로 통제하고 MMPI 하위척도들이 본 연구에 포함되었

던 살인범들의 재범여부를 유의하게 예측하여 주는지 cox regression을 이용하여 생존분석 하였다.

결 과

MMPI의 하위척도 평균 및 상관관계 분석

표 3에는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110명의 살인범들의 MMPI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L은 평균 56.16, 표준편차 10.96, F는 평균 49.31, 표준편차 9.39, K는 평균 55.95, 표준편차 10.24, Hs는 평균 51.38, 표준편차 10.04, D는 평균 48.22, 표준편차 9.68, Hy의 평균은 50.87, 표준편차 9.66, Pd의 평균 57.21, 표준편차 9.18, Mf 평균 51.91, 표준편차 8.44, Pa의 평균 57.21, 표준편차 9.18, Pt의 평균 50.00, 표준편

표 3. MMPI 하위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MMPI 하위척도	평균(MD)	표준편차
L	56.16	10.96
F	49.31	9.39
K	55.95	10.24
HS	51.38	10.04
D	48.22	9.68
HY	50.87	9.66
PD	57.21	9.18
MF	51.91	8.44
PA	52.73	10.37
PT	50.00	9.54
SC	49.77	9.52
MA	49.57	10.75
SI	47.65	10.60

차 9.54, Sc의 평균 49.77, 표준편차 9.53, Ma의 평균 49.57, 표준편차 10.75, Si의 평균은 47.65, 표준편차가 10.60으로 나타났으며, Pd와 L의

표 4. MMPI 하위척도별 상관계수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L	1												
F	-.145	1											
K	.436***	-.339***	1										
HS	.173	.294**	.035	1									
D	.120	.483***	-.128	.583***	1								
HY	.119	.285**	.033	.778***	.528***	1							
PD	-.142	.333***	.048	.280**	.247**	.375***	1						
MF	.197*	.207*	.028	.244*	.258**	.248**	-.008	1					
PA	-.051	.555***	-.279**	.378***	.387***	.426***	.342***	.369***	1				
PT	.067	.472***	-.045	.671***	.576***	.654***	.377***	.320***	.601***	1			
SC	-.023	.645***	-.205*	.610***	.528***	.581***	.477***	.323***	.641***	.797***	1		
MA	-.165	.297**	-.354***	.152	-.093	.196*	.223**	.042	.404***	.323***	.443***	1	
SI	.021	.245***	-.292**	.315***	.515***	.217*	.128	.061	.267**	.446***	.469***	-.040	1

* $p < .05$, ** $p < .01$, *** $p < .001$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MMPI 하위척도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Hy와 Hs가 .778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Pt와 Hs, Pt와 Hy, Sc와 F, SC와 MA가 각 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 F와 L, K와 F, D와 K, PD와 L, MF와 PD, PT와 K, SC와 L,K 그리고 Ma와 L,K, MA와 D, SI와 K, SI와 MA를 제외한 하위척도들에서 유의미한 상관(표 4)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관계수들은 하위척도들 간의 관련성이 상당히 타당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MMPI 성격검사에 근거한 하위유형 탐색

MMPI 성격검사의 하위척도들로 피조사자들의 성격에 대한 유형이 구분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차원분석을 실시하였다. PROXCAL과

ALSCAL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는데, 분석에는 총 110개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MMPI의 하위척도에 대한 반응들을 기준으로 각 개체간의 표준화된 거리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특성을 2차원 상에서 도식화하였다(그림 2). 이는 MMPI 검사 결과 산출된 잠재특성 상에서 110명의 살인범들의 성격 유형이 나뉠대로 유의미한 구조를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스트레스 값의 개선도는 마지막 반복 분석 결과 개선율이 .00043에 도달하였고 이는 .001보다 작았기에 5회의 변환결과 분석이 종료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보여주는 Stress 값은 .094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기에, 이 모형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개별 성격특성은 두 가지 잠재차원 상에서 비교적 잘 변별된다고 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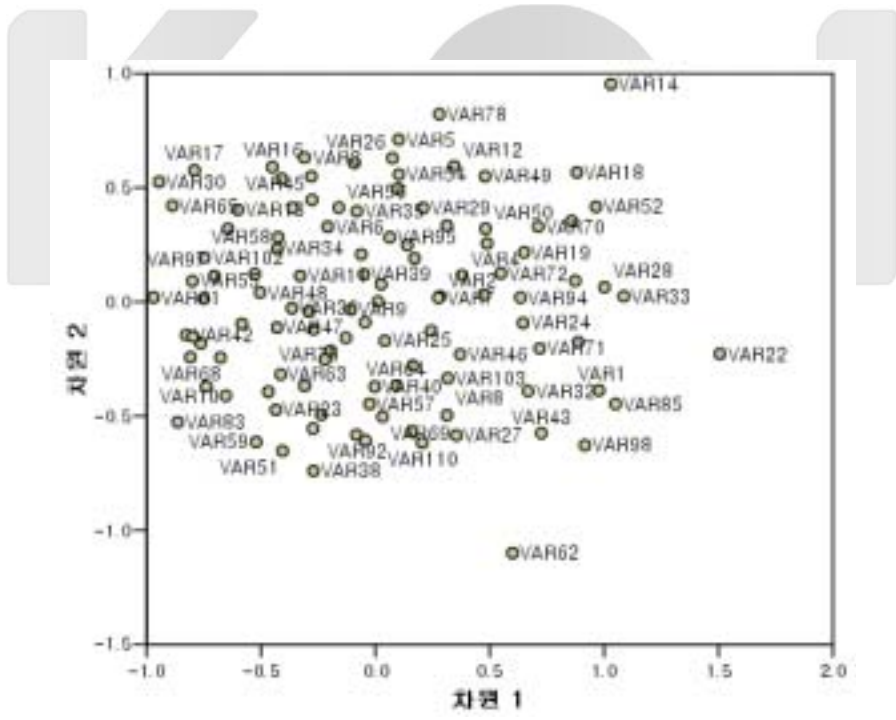


그림 2. 다차원 분석결과 산출된 개별 관찰치의 차원 값

표 5. 다차원분석결과 산출된 MMPI 요인의 좌표 값

	차원1	차원2
L	2.28	.77
F	-1.09	-.25
K	2.58	-.03
Hs	.08	.36
D	-.83	.85
Hy	-.09	.10
Pd	.81	-1.24
Mf	.37	.21
Pa	-.62	-.57
Pt	-.52	.06
Sc	-.73	-.10
Ma	-1.01	-1.53
Si	-1.23	1.39

수 있으며, 전체 개별 관찰치에 대한 설명량 R^2 는 .96으로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10명의 살인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 특성 상에서 하위 유형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원 공간에서의 MMPI하위척도들의 차원 값을 산출하였다. 표 5에는 각 개체의 성격특성을 유의하게 잘 변별해주는 두 차원이 MMPI의 어떤 하위척도에 의해 주로 특징 지워지는지를 보여준다.

우선 차원 1의 경우 L과 K, 그리고 Pd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의 값을 지녔으며 반면 F와 Si가 가장 큰 부적 차원 값을 지녔다. 차원 2의 경우 D와 Si가 높은 양의 좌표 값을 지녔으며 반면 Ma와 Pd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차원과 2차원을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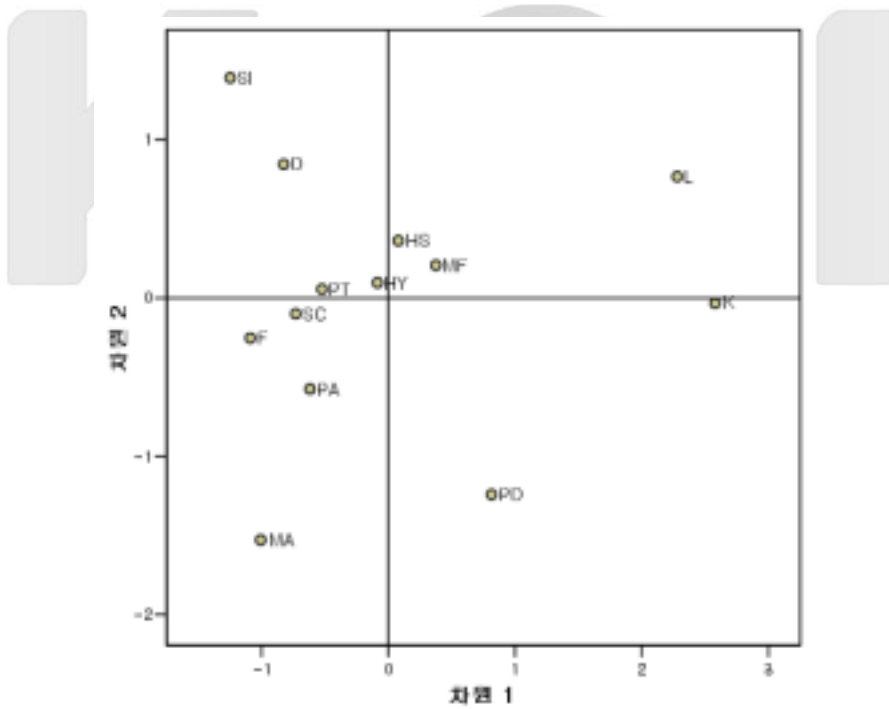


그림 3. 다차원 공간에서의 MMPI 하위척도의 좌표 값

표 6. MMPI 원점수에 대한 상습범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N	평균	표준편차	t 값
L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55.97	10.53	0.12
	전과 2회 이상	77	56.25	11.20	
F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8.48	8.27	0.60
	전과 2회 이상	77	49.66	9.86	
K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57.55	9.62	-1.07
	전과 2회 이상	77	55.26	10.47	
HS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51.12	10.13	0.18
	전과 2회 이상	77	51.49	10.06	
D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7.09	9.94	0.80
	전과 2회 이상	77	48.70	9.59	
HY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50.27	9.70	0.43
	전과 2회 이상	77	51.13	9.70	
PD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57.00	9.87	0.16
	전과 2회 이상	77	57.30	8.93	
MF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50.73	9.02	0.96
	전과 2회 이상	77	52.42	9.62	
PA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9.79	7.44	1.97
	전과 2회 이상	77	53.99	11.21	
PT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8.61	8.44	1.00
	전과 2회 이상	77	50.60	9.97	
SC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8.88	8.82	0.64
	전과 2회 이상	77	50.16	9.84	
MA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7.52	11.37	1.32
	전과 2회 이상	77	50.45	10.43	
SI	초범 혹은 전과 1회	33	48.70	11.03	-0.67
	전과 2회 이상	77	47.21	10.46	

* $p < .05$

적으로 비교하여 보자면, 첫 번째 차원은 살인범들의 기만적이고도 반사회적인 경향으로 대표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두 번째 차원은 우울과 내향성 경향은 높지만 활동수준은 매우 저조한 경향으로 풀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차원이 이와 같은 조합을 이룬다는 사실은 MMPI의 개별 척도들이 각기 독립적인 성격특성들로 존재하기보다는 살인범들을 구분함에 있어 서로 복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반사회적이고도 가식적인 특성과 우울하고 내향적이며 비활동적인 특성이 우리나라 남성 살인범들의 성격유형의 구분에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과 여부에 따른 MMPI 상에서의 차이

위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살인범들의 성격유형은 MMPI로서도 비교적 유용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성격유형으로 살인범들이 프로파일링 될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과 일관된 결과이다. 이번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성 살인범들은 전과의 상습성 여부에 따라 MMPI 하위척도 상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상습범이란 현재 수감된 본 건 이외에 전과가 2범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정의하였다. 예상대로라면 상습범들의 성격특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반사회적이고 기만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표 6에는 MMPI 원점수 상에서 상습범인지의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차이분석 결과 예상과는 달리 MMPI의 그 어떤 척도 상에서도 상습범과 초범 사이에는 유의한 평균간의 차이가 발견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누범자라고 하여 꼭 성격적으로 특이 경향을 지니고 있는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MMPI에 따른 재범예측

이번에는 MMPI로 측정된 성격유형으로 재범 여부가 유의하게 예측될 수 있을런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일단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포함되었던 110명의 응답자들은 2000년도에는 모두 수감되어 있었지만 그 후 모두 출소하였다. 그들 중 다시 재범한 자들은 11명이었다. 이들이 출소 후 본 연구에 포함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4년 정도였다.

표 7에는 재범한 자들과 재범을 하지 않은 자들의 MMPI 하위척도 상에서의 평균 점수들이 제시되어 있다. 예상하였던 바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하였던 남성 살인범들의 재범 여부는 MMPI 하위척도 상에서 유의한 차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는 MMPI의 하위척도들이 4년 정도의 추적기간을 두고 출소자들의 미래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유의한 예측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MMPI 하위척도들의 상대적인 예측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하여 출소하여 재범을 하기까지의 기간을 시간변수로 통제하고 Cox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알파수준을 .05로 유지하였을 때는 MMPI의 그 어떤 하위척도도 재범을 예측함에 있어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다. 이 결과는 역시 판별분석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재범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판별분석 결과 산출된 단 하나의 함수

표 7. MMPI 원점수에 대한 재범 여부에 따른 차이분석

	재범여부	N	평균	표준편차	t 값
L	재범	11	58.45	14.00	0.73
	재범하지 않음	99	55.91	10.62	
F	재범	11	51.64	9.83	0.87
	재범하지 않음	99	49.05	9.35	
K	재범	11	55.91	11.75	-0.01
	재범하지 않음	99	55.95	10.12	
HS	재범	11	47.27	7.94	-1.44
	재범하지 않음	99	51.84	10.17	
D	재범	11	49.18	6.54	0.35
	재범하지 않음	99	48.11	9.99	
HY	재범	11	48.36	6.85	-0.91
	재범하지 않음	99	51.15	9.91	
PD	재범	11	56.27	9.78	-0.36
	재범하지 않음	99	57.31	9.16	
MF	재범	11	52.73	7.35	0.34
	재범하지 않음	99	51.82	8.59	
PA	재범	11	53.00	12.53	0.09
	재범하지 않음	99	52.70	10.18	
PT	재범	11	50.00	10.47	0.00
	재범하지 않음	99	50.00	9.49	
SC	재범	11	48.82	11.09	-0.35
	재범하지 않음	99	49.88	9.39	
MA	재범	11	48.55	9.77	-0.33
	재범하지 않음	99	49.69	10.90	
SI	재범	11	47.27	9.49	-0.13
	재범하지 않음	99	47.70	10.76	

는 고유치가 1을 넘지 못하여 재범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r^2(13)=7.12$, m . 이 함수의 재범예측력은 54.5%에 지나지 않아 우연수준인 50%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 발견하였던 주요한 사실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MMPI 성격검사는 살인범들의 성격프로파일링의 유용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위유형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일단은 개인 간의 성격 차는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다차원 분석의 결과가 이런 사실을 반증하여준다. 하지만 살인범들의 성격프로파일이 전과 횡수와 범해특성과 연관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하였으며, 살인범들의 성격프로파일이 살인자에 대한 성격유형을 재범을 예측해주는 데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MPI 성격검사를 토대로 하여 살인범들의 서로 다른 성격유형에 대하여서는 프로파일링이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MMPI성격검사 결과가 재범예측에 그대로 활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현재 내릴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범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성격검사 결과로 미래의 살인을 예측하는 일은 상당히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점이다. 차라리 재범을 예측하기 위하여서는 일반 성격요인보다 미래의 폭력행위를 예측하도록 보다 특화된 검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하다.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측정도구들 중 가장 유명한 검사는 PCL-R(Psychopathy Checklist-Revised; Hare, 1991)이다.

Lally(2003)는 최근 법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평가도구에 대한 적합도 여부를 64명의 법정심리학 분야의 학위를 지닌 전문가들에게 평가시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피조사자들은 모두 미국 법정심리위원회(American Board of Forensic Psychology)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들이었으며 이들은 법정감정 절차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6 가지 주제(범행 당시의 정신 상태에 대한 평가 등)를 평가함에 있어 심리평가도구의 적합도를 6가지 등급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미래의 폭력에 대한 위험가능성을 예측함에 있어 MMPI-2보다는 PCL-R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표 9에는 여러 가지 심리측정 도구들의 재범예측력을 비교한 메타분석의 결과가 요약되

표 8. 폭력 위험성 평가도구(Lally, 2003)

분류유목	측정도구
강력 추천	PCL-R (63%)
적합	PCL-R (88%), MMPI-2 (88%), PCL-SV (73%), WAIS-III (67%), PAI (61%)
애매-부적합	MCMI (II & III), Stanford-Binet-Revised
애매-판단 유보	HCR-20, WASI, KBIT, Luria-Nebraska, Halstead-Reitan
매우 부적합	Projective Drawings (90%), TAT (82%), sentence completion (71%), Rorschach (53%), 16PF (53%)
판단 유보	LSI(80%)

표 9. 재범예측에 관한 메타분석 결과(Gendreau et al, 1996)

Predictor(k)	N	r(SD)	z±
Risk Scales			
LSI-R(28)	4,579	.35(.08)	.33*
SFS(15)	9,850	.29(.10)	.26*
Wisconsin(14)	14,092	.27(.08)	.32*
other(66)	29,290	.30(.17)	.30*
Antisocial Personality Scales			
MMPI based(16)	3,420	.16(.09)	.21*
PCL(9)	1,040	.28(.09) ¹	.29*
other(37)	8,875	.16(.13)	.16*

어 있다(Gendreau, Goggin & Little, 1996). 여기에는 재범을 예측하는 실증적 통계치들이 보고되어 있다. 다른 예측도구들에 비하여 LSI-R(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 - Revised; Andrews & Bonta, 1995), SFS(Salient Factor Score; Hoffman, 1983), 그리고 PCL-R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측력을 지녔다. 이에 비해 MMPI로 자기보고된 반사회성은 재범예측력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살인범죄는 다른 폭력범죄에 비하여 더 많은 경우에 있어,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벌이는 우발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국내에서는 외국에서와 같이 비정상적인 성격장애자가 벌이는 연쇄살인 등의 경우보다는 그야말로 순간적인 격분을 참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통계치가 아니더라도 국내 살인의 경우 반사회적 성격이 도화선이 되는 살인사건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격적 특성에만 근거하여 살인범들의 재범을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발상이다. 따라서 수용자들의 정신감정이나 교정시

설 내에서의 적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범을 예측할 목적으로 MMPI를 활용하는 방법은 MMPI에 대한 그리 바람직한 활용법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표본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예측에 있어 MMPI의 활용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추후 보다 많은 실증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검찰청 (2003). 범죄분석.
 김진혁 (2002).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지, 13, 111-145.
 이수정, 이윤호 (2001). 교정심리검사 및 분류 심사절차의 개발. 교정연구, 12, 263-310.
 이수정, 서진환, 이윤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 일반, 19(2), 43-62.
 이준걸 (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응. 법학연구, 5, 227-260.

- 임영란, 안창일 (1992). MMPI 내용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 42-64.
- Abadinsky, H. (1994). *Organized crime*(4th ed). Chicago: Nelson-Hall.
- Andrews, D. A., & Bonta. J. (1995). *LSI-R: The Level of Service Inventory - Revised*. Toronto: Multi-Health Systems, Inc.
- Bailey, W. C., & Peterson, R. D. (1994). Murder, capital punishment, and deterrence: A review of the evidence and an examination of police killing. *Journal of Social Issues*, 50, 53-74.
- Hare, R. D. (1991). *The Revised Psychopathy Checklist*. Toronto: Multi-Health Systems.
- Hoffman, P.B. (1983). Screening for risk: A revised Salient Factor Score (SFS 81).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1, 539-547.
- Gendreau, P., Goggin, C., & Little, T. (1992). *Predicting Adult Offender Recidivism: What Works!* (Unpublished report, Ministry Secretariat). Ottawa: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Luckenbill (1977). "Criminal Homicides as a Situated Transaction", *Social Problems*, 25 179-196.
- Lally, S. J. (2003). What test are acceptable for use in forensic evaluations? A survey of exper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5), 492-498.
- Megargee, E. I. (1977). A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criminal offenders:1. The need for a new classification system.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4, 107-114.
- Megargee, E. I., & Bohn. M. J. (1977). A new A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criminal offenders: IV. Empirically determined characteristics of the ten typ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 149-210.
- Megargee, E. I., & Dorhout. B. (1997). A new classification system for criminal offenders: III. Revision and refinement of the classification rul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 125-148.
- Parmer, S. A. (1962). *The psychology of murder*. NY: Thomas Y. Crowell.
- Wiggins, J. S. (1969). Content dimension in the MMPI. In J. N. Butcher(Ed.), *MMPI: Research developments clinical applications*. New York: McGraw-Hill.
- Wolfgang (1958). *Patterns in Criminal Homicid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Zager, L. (1988). MMPI-based criminal classification system: A review,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5(1), 39-57.

1 차원고접수 : 2005. 10. 10

수정원고접수 : 2006. 5. 15

최종게재결정 : 2006. 6. 05

Personality Profiling of Korean Male Murderers Based on MMPI and Recidivism Prediction

Soo Jung Lee Eun Kyung Kong Jung-Sik Kong

Criminologic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Based on the premise that MMPI might be useful for criminal profiling, MMPI scores of 147 murderers were drawn out of 902 inmate data collected in 2000. Additionally future recidivism indices of these cases were followed up. Among these 147 cases, MMPI scores of 110 murderers without validity problems were finally included into the analyses of this study. First of all, multi-dimensional analyses confirmed two personality dimensions drawn from MMPI subscales useful to differentiate personality types of murderers. Those two dimension were assessing antisocial tendency and depression. However, it was not confirmed that MMPI might predict future recidivism. Survival analysis as well as discriminant analysis did not found any significant results. These facts presents personality inventories such as MMPI are effective to illustrate the subtypes of personality but could not become useful predictors of future crime.

Key words : MMPI, personality profiling, recidivism